

양산 전법회관, 지역 불교 활성화 첫 삽 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양산 전법회관(주지 정도)을 마련하고 신도시 포교에 나선다.

양산 전법회관은 10월 7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71-5번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포교원 미약한 양산신도시에 자리해 주민 편의시설 갖추고 문화공간 지향

이곳은 양산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8만6000명 가량의 불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신도시에는 포교원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 전법회관 건립이 이 지역 불교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공식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등 30여 명 이상의 스님들이 참석했고 정도 스님의 지도 교수인 동국대 명예교수 범산

스님도 참석했다. 이 밖에도 백승완 부산대 병원 前 병원장, 전영도 울산불교방송 사장 등 여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2021년 완공예정인 양산 전법회관은 건평 3500평에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로 건설된다. 내부에는 유치원, 다문화가정센터, 극장식회관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산후조리원, 치과, 한의원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산 전법회관은 야간 교리 강좌를 원하는 양산 신도시 불자들과 신도시 포교를 위해 건립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통도사 소유로 900여 평의 땅을 이전 등기했고, 2010년 양산전법회관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정도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건립불사기금을 모금했다. 양산 전법회관은 물금읍 뿐만 아니라 양산시와 부산시의 주민과 불자들의 문화 공간 및 복지·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10월 7일 양산 불교 활성화의 마음을 담아 양산 전법회관 기공식이 열렸다.

양산 전법회관 주지 정도 스님은 “불교 수행에서 재가 불자교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 전법회관도 이런 마음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미니 인터뷰

청하지 않아도 벗되어 돕겠다

양산 전법회관 주지 정도 스님

“신도시는 타종교에 비해 부처님 도량이 부족합니다. 양산 전법회관은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원만한 화합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양산 및 부산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산 전법회관의 기공식이 첫 삽을 떴다. 주지 스님으로 임명된 정도 스님은 중요한 불사에 많은 사부대중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도 스님은 “지역민들의 문화공간과 행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신도시 개발이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불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양산 신도시에 포교원이 드물고 불교대학의 활동도 미흡해 양산 전법회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불교계의 신도시 포교가 미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산 포교원이 작공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정도 스님은 대만 불광산사 성운 대사의 글귀를 통해 주지로서의 마음가짐을 표현했다.

“스스로는 <화엄경>의 ‘不忘初心(부망초심)’으로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불교에는 <유마경>의 ‘不請之友(부청지우)’로서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도와주며, 사회에는 <팔대인각경>의 ‘不念舊惡(부념구악)’으로 이전에 남이 나를 나쁘게 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수행에는 <기신론>의 ‘不變隨緣(부변수연)’으로 인연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변해서 안됩니다.” 박기범 기자



적멸보궁 빛으로 세상 밝히는 통도사 다짐

통도사 1366주년 개산문화대제 성료

자장율사가 창건한 불자종가 통도사가 개산 1366주년을 맞았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10월 1~5일까지 5일간 ‘개산 1366주년, 개산문화대제’를 봉행했다.

축제 첫날인 1일에는 BTN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2일 영축사생대회, 3일 통도사부설유치원의 재물잔치 등 예년과 달리 한층 젊고 활기찬 개산대제가 펼쳐졌다. 이어 4일 부도현다와 5일 괘불이온 및 현공, 지역문화발전 공헌자 표창과 불자청소년 장학금전달식, 법요식 등 예경의 장이 봉행됐다.

광우 교무국장님은 “이번 개산문화대제의 주제가 ‘개산의 빛 나눔의 장인만큼 진리의 빛으로 어린이부터 연로한 어른들 등 전 세대를 아울러 어둠을 밝히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개산대제 기간 중에만 특별히 대중에게 공개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개산조 자장율사의 친척가사 배견 및 괘불탱특별전이 성보박물관에서 개최됐다. 통도사에 봉안된 가사는 매년 개산대제 당일에만 공개했으나 올해 특별히 축제 전 기간으로 늘이고, 장소도 성보박물관 괘불전 앞에서 실시됐다.



통도사는 개산 1366년을 맞아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개산대제를 열었다.

자장율사가 623년 당으로 유학을 떠난 후 오대산(五臺山)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을 만나 석가모니의 가사 한 벌과 발우 하나, 부처님의 정수리뼈와 치아 사리 등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석가모니부처님 가사는 643년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귀국하면서 통도사에 전래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신 사리와 금란가사가 봉안돼 있어, 팔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사찰 해인사, 보조국사 이래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와 함께 삼보의 으뜸인 불보사찰의 사격을 지닌다.

이와 함께 보살사 괘불은 국내에서 전하는 불화 중 4번째로 이른 시기인 1649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8월 8일 보물 제1258

호로 지정됐다. 이 그림은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로, 세로 530cm, 가로 401cm의 비단 바탕에 안료를 배운 작품이다.

원산 주지스님은 “올해 유난히 나라 안팎으로 큰 재난이 일어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 다시금 환경과 생명의 실상에 대해 뉘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장율사께서 통도사를 창건하신 이유 역시 사부대중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범을 삼고자 하신 것”이라며 “깊어가는 가을 적멸보궁의 빛이 많은 이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영산재 작법무 제1회 시연회 봉행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작법무 연수원에서는 10월 3일 부산시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시연회 및 호국영령 위령(지전) 봉행제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영산재 작법무 보유자인 전통불교조계종 종정 경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산 영산재 작법무의 시연을 통해 불교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작법무 연수원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여러 사부대중에 공개해 문화적 보존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호 스님 외 원산 스님, 해화 스님, 성조 스님이 다계 작법,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극락무 등을 시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음악으로 찾는 희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제5회 환자케어’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10월 11일 해운대 백병원 지하 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해운대 백병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 투병생활로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2008년 동아대학교 병원을 시작으로 2009년 부산대병원, 2010년 부산백병원, 2011년 동의료원 등에서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우리지역 부부나혼자를 찾아서

부처님법으로 세상 바로세우겠습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불자모임 ‘법등회’ 백명재 회장

9월 30일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 법계정사에서는 법등회 창립 3주년 기념 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백명재(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1, 법명 대공) 회장은 취임사에서 “스스로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발원했다. 백 회장은 “정년 불자의 수는 상당히 적고 불교에 젊은 이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져 가는 상황에서, 저희 법등회 회원들은 당당히 불교활동을 하며 저희와 같이 불교학생회를 만들려는 법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설립을 도와줄 것”이라며 “아직은 예비 변호사단체이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불자법조인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또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법등회’는 2010년 11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2기 불자 대학생들 주도로 창립했다. 그러나 스스로 불자임을 밝히고, 법회에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학우가 없어 제대로 된 법회를 운영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여름방학을 맞아 뜻있는 학우들과 모여 범어사(주지 정여) 휴휴정사로 떠난 템플스테이에서 법회의 원력을 모으게 됐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9월 30일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여법한 창립기념법회를 마쳤다. 현재 4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초발심자로 학업과 수행에 열심이다. 이러한 상생세에 힘입어 8월부터 거제도 사찰순례와 하동 칠보사 템플스테이, 창립총회, 부산법조불교회 정기법회 및 부산거사학회 정기법회 동참 등 청년다운 패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세속의 모든 부분에서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 불교의 진리도 전 영역을 아우른다고 생각합니다. 성년 없이 웃음이 만연할 수 있게 변화시키고, 억울한 마음 달래주어 원망을 없애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미물 하나라도 불성이 없는 것이 없으니 우주만물에 진심으로 하심(下心) 할 수 있는 겸손한 불자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박지원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